

느리지만 함께, 더디지만 빠르게

'느린 학습자'라 불리는 아이들이 있다. *경계선급 지능으로 또래보다 학습이 조금 느리고 더딘 아이들이다. 더 많은 관심과 교육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공교육 테두리 내에서 제대로 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느린 학습자'를 위한 따뜻한 배움터가 고양특례시에 있다 하여 찾아가 보았다. 자립대안학교 '이루다학교'를 소개한다.

* 경계선급 지능이란 지능검사에 의해 산출된 지능지수가 71에서 84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전 인구의 약 6~7%가 해당된다.



이루다학교

왼쪽 위부터 윤정목, 정미영, 박혜연, 김다슬난, 김동훈, 기주현, 설주영, 박예선 교사



교육 성장기, 배움기, 실천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는 자립인 육성
주소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49 엘지프라자(정발산동)
문의 ☎ 031-976-0629

조금 느려도 괜찮아

2008년 어느 날, '느린 학습자' 아이들을 위해 부모들이 힘을 모았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손수 주말학교를 운영하며 교육의 공백을 메워갔고, 교사들도 재능기부를 통해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봄,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과 교사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문을 연 '이루다학교'는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따뜻한 배움터로 자리잡았다.

이루다학교는 학생 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장반, 배움반, 실천반으로 학급을 편성하고 초·중·고등 구분 없이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무학년제 수업을 한다. 가장 주된 프로그램은 실생활 중심 교과 과정이다. 스피치, 스마트 기기 활용, 일상 생활 훈련, 기획력 향상, FIE(인지학습 프로그램) 등 수준별 맞춤형으로 다양한 교구를 사용한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건강한 자립을 돕기 위한 심화 교육도 진행된다.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대처하는 힘을 길러 사회성을 키우는 사고력 훈련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사진전, 에세이 출간, 체육대회 등 아이들의 꿈과 바른 자립을 응원하는 문화 행사도 해마다 진행한다.



66

설주영 특수교사

제자들이야. 매일 수업을 듣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지금, 이 순간이 다가올 미래의 예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과 함께할게.



99



너희의 꿈을 응원할게

고등 과정을 마친 아이들을 위한 '이루다 꿈학교'도 운영 중이다. 경계선급 지능은 복지 등급이 없기 때문에 비장애인과의 경쟁구도에서 소외되기 쉽다. 때문에 원활한 취업을 위해 교과 과정 외에도 섬세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이루다 꿈학교는 취업을 앞둔 직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성에 맞는 특기를 개발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을 전담한다. 사회적 기술훈련과 함께 제과제빵, 포장, 조립, 컴퓨터 활용업무기술 기초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경계선급 지능 아이들을 위한 고양시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를 계기로 느린 학습자에 대한 교육, 복지, 고용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설주영 특수교사는 “아이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주체적이고도 능동적인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라며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조금 느리고 더디지만 함께, 그리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토대, 이루다학교는 아이들의 꿈을 키워가는 소중한 공간이다. 이루다학교가 아이들과 함께 이뤄나갈 소중한 꿈 이야기를 응원한다.